

일본 동경 지교회 창립 기념예배

지난 6월 초, 일본 지교회 두 곳에서 이희선 목사를 강사로 창립 기념예배가 열려 성도들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시간을 가졌다.

일곱 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통해 오늘날 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간절한 외침을 듣는다.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교훈 (2)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죽도록 충성해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라고 말씀하셨다. 이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주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순교의 믿음을 의미한다.

꿈속에서 기도받은 뒤...

꿈에서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기도를 받은 뒤 척추측만증이 치유된 동광주만민교회 최인애 자매와 권능의 손수건 기도를 받고 원형탈모증을 치료받은 몽골만민교회 밤바 남수렌 자매의 간증.

만민뉴스

제485호 2011년 6월 12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생명의 빛을 땅 끝까지 전하는 우림북

제17회 '서울국제도서전'에 23개국 570여 개 출판사와 함께 참가

국내 최대 도서전인 '2011 서울국제도서전'(www.sibf.or.kr)이 '책은, 미래를 보는 천 개의 눈'이라는 주제로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올해 17회인 이번 도서전에는 국내는 물론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총 23개국 570여 개 출판사가 참가해 아동, 인문사회, 문학, 예술, 철학 등 각 분야 도서를 소개한다.

이 도서전에 우리 교회 부설 도서출판 우림북(www.urimbooks.com)이 참가한다. 우림북은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신앙서적 60여 종과 25개 언어 번역 도서 130여 종, 이북(e-book) 120여 종을 전시하며 우리 교회의 세계 선교사역을 홍보한다.

이 목사는 러시아어권 최대 기독교 포털사이트 '인빅토리'(www.invictory.org)와 영어권 기독교 포털사이트 '크리스천텔레그래프'(www.christiantelegraph.com)에서 2009년에 이어 2010년 가장 영향력 있는 사역자 10인에 선정된 바 있다.



'2011 서울국제도서전' 우림북 부스(A홀, 116)에 가면 세계 출판 현황과 PC와 킨들, 아이리버, iPad, 갤럭시 탭 등으로 전자책을 볼 수 있다. 또한 방문객들을 위한 즉석 퀴즈 이벤트(18일, 오후 2시와 4시)와 다양한 사은품이 준비되어 있다.

코엑스 A홀 116에 위치한 우림북 부스는 질병의 고통 가운데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 단번에 치료받고,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 복음과

권능으로 전 세계를 깨우는 이 목사의 신앙 간증을 접할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우림북은 영혼구원을 위해 문서 선교 사역을 이루는 성령의 도구로서 다양한 언어의 책을 출판, 전 세계에 보급하고 있다.

신구약을 꿰뚫는 이 목사의 통찰력 있는 메시지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해 천국을 소망하는 독자들과 영적 성장을 돕는 데 힘쓰고 있다.

한편, 서울국제도서전에서는 특별 전시와 세미나, '저자와의 대화', '인문학 카페'와 부대행사를 진행한다. 관람시간은 15일(수) 오전 9시~오후 6시, 16일(목) 오전 10시~오후 7시, 17일(금)과 18일(토) 오전 10시~오후 8시, 19일(일) 오전 10시~오후 5시이다.

■ '우림'은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이 하나님 뜻을 묻기 위해 사용한 판결흉패이며, 히브리어로 '빛'이라는 의미가 있다(출 28:30). 빛은 곧 하나님 말씀이며 생명이다.

우림북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협회(ECPA), 미국 기독교서적 판매인협회(CBA), 대한 출판문화협회 회원사로 활동하고 있다.

일본 동경 지교회 창립 기념예배와 손수건 집회



동경 만민교회(담임 최병란 전도사)가 지난 6월 3일 이희선 목사(전국 남녀선교회 총지도교사)를 강사로 창립 3주년 기념예배를 드렸다.

우리 교회 예능위원회 소속 '권능' 팀의 특송 후, 이 목사는 '믿음 위에 세운 교회'(마 7:24~27)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죄악들을 버리기 위해서는 기도가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교회가 되면 구하는 대로 응답을 받는다"고 전했다.

이어진 손수건 집회(행 19:11~12)에서는 여러 성도들이 치유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한편, 6월 5일에는 이 목사를 강사로 동경 타바타 만민교회(담임 정경태 목사) 성전 이 전예배 및 창립 11주년 기념예배가 있었다.

인도 첸나이 만민교회 청년 수련회 개최

지난 6월 2일, 인도 첸나이 만민교회(담임목사 한정희 목사) 청년 수련회가 첸나이 외곽에 위치한 퀸스랜드에서 열렸다.

'토기장이와 진흙'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수련회에서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서로 나누며,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이 무엇인지 되새겨 보는 시간을 가졌다.



평소 섬씨 40도가량 되는 더운 날씨이지만,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기도를 받고 진행한 이번 수련회 시, 하나님께서는 구름으로 태양을 가려주시고 시원한 바람을 불어 주셨다. 또한 태양을 두른 원형무지개를 볼 수 있었다.